

한국회계학회
2014 동계학술대회

환경변화와 회계기준변화가
시중은행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2014.12.21

중앙대학교

왕인태 강선민

I. 머리말

- 금융회사는 대부분 타인자본인 예금과 차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는 경우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며 나아가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 필요
- 금융회사의 총당금적립대상은 대출채권으로 총자산의 62.7%수준인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매출채권 등으로 총자산의 14.8%수준
- 금융회사의 경우 총당금설정규모가 커 총당금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총당금부족은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
- 일반기업의 경우 소수 업종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 손실률 산출에 큰 어려움이 없음
-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업종 다양한 종류의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회사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요하여 손실률 산출 복잡

I. 머리말

- 외환위기 전에는 감독당국이 매년 총당금 적립기준이 포함된 결산지침을 마련하여 은행에 통보
- 1994년 6월 은행업회계준칙에서 **경험손실률**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제도 도입
- 기존회계기준에서는 채권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K-IFRS는 채권금액에 대한 손상평가 결과 손상이 있을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변경하여 대손충당금이 대폭 감소

II. 연구동기

은행 대손충당금 늘어날듯 'IFRS 9' 원안 발표 (조세일보 14.7.25.파이낸셜뉴스 14.8.14))

손상과 관련된 회계를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 ✓ 현재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인식
- ✓ IFRS 9이 도입되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마저 손상으로 계산
- ✓ 대손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적립
- ✓ 대출채권이나 채무증권 등의 원리금을 만기까지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그
런 금융자산에서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
- ✓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일으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대손충당
금을 쌓는 현행 기준에 비해 그 시기가 빨라지게 됨

II. 연구동기

- 은행업의 경우 K-GAAP에서는 경험손실(예상손실)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일정률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 대손충당금 적립
- IFRS는 발생손실을 기준으로 결산일 현재 대손사유가 발생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대손충당금이 대폭 감소
- IFRS 도입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IFRS 도입 첫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유예
- IFRS에 따라 적립된 대손충당금이 금감원 감독규정으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보다 작아질 가능성.
- 금감원은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금감원 감독규정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비해 해당 차액만큼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이라는 법정적립금을 신설

II. 연구동기

❖ 은행감독규정

-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11.6.24, 2012.8.8, 2014.2.11>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II. 연구동기

❖ (주)국민은행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13(당)기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12(전)기말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12(전)기초 2012년 1월 1일 현재
자산총계	262,428,438	258,555,016	257,728,625
부채총계	241,943,108	238,684,926	238,720,227
자본총계	20,485,330	19,870,090	19,008,398
자본(주식25)			
I. 자본금	2,021,896	2,021,896	2,021,896
II. 자본잉여금	5,220,031	5,220,031	4,285,131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식34)	543,146	523,335	325,126
IV. 이익잉여금(주식 25,33)	12,700,257	12,104,828	12,376,245
(대손준비금 적립액)	(1,573,744)	(1,529,975)	-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93,989)	(43,769)	(1,529,97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13(당)기 2013.1. 1.~ 2013.12.31.	제12(전)기 2012.1. 1.~ 2012.12.31.
I. 순이자이익(주식26)	5,188,511	5,859,269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83,538	1,747,849
XI. 법인세비용(주식32)	(406,070)	(426,441)
X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783,479백만원 전기 : 1,277,639백만원)주식25	877,468	1,321,40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분예정일 : 2014.3.27. 처분확정일 : 2013.3.21.

과목	제13(당)기 2013.1. 1.~ 2013.12.31	제12(전)기 2012.1. 1. ~ 2012.12.31.
I. 미처분이익잉여금	915,738	1,337,826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8,974	16,807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924,623	1,316,363
5. 대손준비금	93,989	43,769
6. 배당금	158,517	282,039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9	38,270

II. 연구동기

❖ 우리은행

주석31. 대손준비금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감독 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됩니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1,297,123	1,127,236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금액	(103,730)	169,887
대손준비금 잔액	1,193,393	1,297,123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기 및 전기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대손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394,333	1,391,77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103,730)	169,88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498,063	1,221,887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592원	1,501원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기본원칙만을 규정
- 금융기관 회계기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원칙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Credit Loss)은 내부유보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1994년 6월 은행들은 **경험손실률**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제도 도입
- 반면 증권과 보험 등은 1998년이후 IMF의 권고 등에 따라 당시 은행의 최저적립비율을 이용하여 자산 건전성 단계별 최저적립비율 설정
- 경험손실율 산출을 위해서는 수년간의 건전성분류별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 등의 자료가 필요
- 은행이외의 타 금융권은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이러한 방법을 채택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 은행업회계처리준칙(98.12) 27조 :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손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
-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
- 정상거래처 채권 :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 그 외 채권은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
- 주의거래처 채권 : 담보자산 가치, 보증인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 그 외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
- 불량거래처 채권 : 담보자산 가치, 보증인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 그 외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 **은행업회계처리준칙(98.12) 27조 :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적용
 -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 K-IFR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2.03):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인식
-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함
-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인식
-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로 측정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함¹¹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 K-IFR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2.03):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 금융자산 손상 객관적 증거

- (1) 금융자산 발행자나 지급의무자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
 - (5)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6)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 감소를 시사하는 예
- (가) 연체횟수 증가,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 수 증가
- (나) 차입자 거주 지역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 담보자산가격 하락, 석유 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 악화 등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예상손실모형

은행업회계처리준칙(1988)

-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매기 계속 적용

발생손실모형

K-IFRS 39(IAS 39)

-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 평가
-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로 측정
-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미포함

기대신용손실모형

IFRS 9

- 금융자산 취득시 기대신용손실을 결정하여 만기까지에 걸쳐 이자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동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
- 손상 인식시 별도 손상인식사건을 요구하지 않음
- 매기 기대신용손실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

III. 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발생손실모형의 문제점>

-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손실모형의 예상손실 인식 지연 문제가 더욱 부각
- IASB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IFRS 9에서 대손충당금 측정방법으로 발생손실모형 대신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

<기대신용손실모형의 문제점>

- 기대신용손실모형은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예상손실의 인식이 주관적이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예상손실률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

IV. 선행연구

권혁대/이은서(2013) :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요인

- 기간 : 1999 - 2009
- 대상 :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 실증분석 결과
 - 대손충당금과 양(+)의 관계 - 은행규모, 비이자순익, 부동산담보대출,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과 음(-)의 관계 - 가계대출, 총자산순이익률

고승의(2012) : 은행의대손충당금 측정 사례연구

- K-GAAP :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급별로 금융감독원이 규정하는 최소적립률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
- K-IFRS : 발생손실모형을 사용해 측정한 대손충당금은 종전의 금융감독원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시행중인 K-IFRS의 대손충당금 측정방법인 발생손실모형은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예상손실모형으로 시급히 개정을 요함

IV. 선행연구

Hasan and Wall(2004) : Determinants of the Loan Loss Allowance

- 기간 : 1994 - 2000
- 대상 : 미국은행, 캐나다은행, 일본은행
- 실증분석 결과 :

	미국	캐나다	일본
Nonperforming loan	+	+	+
Charge-off	+	---	---
Loan	+	---	+
Pretax, provision earnings	+	---	+
lagged equity	---	---	-

V. 연구모형

❖ Sample selection

1995년 ~ 2012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은행

- 1) 특수은행 제외
- 2) 피합병은행은 합병직전연도까지 분석대상에 포함
- 3)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 4) 은행경영통계

V. 연구모형

$$LLA_t = a_0 + a_1 NPL_t + a_2 NCO_t + a_3 LOAN_t + a_4 ER_{t-1} + a_5 RETN_t + \varepsilon_t$$

LLA_t : 대손충당금_t/총자산_t

NPL_t : 고정이하여신_t/총자산_t

NCO_t : 상각채권_t/총자산_t

$LOAN_t$: 고정이하여신을 제외한 대출금_t/총자산_t

ER_{t-1} : 자기자본_t/총자산_{t-1}

$RETN_t$: 법인세비용과 대손상각비 차감전 순이익_t/총자산_t

<참고> 고정이하여신:고정여신+회수의문여신+추정손실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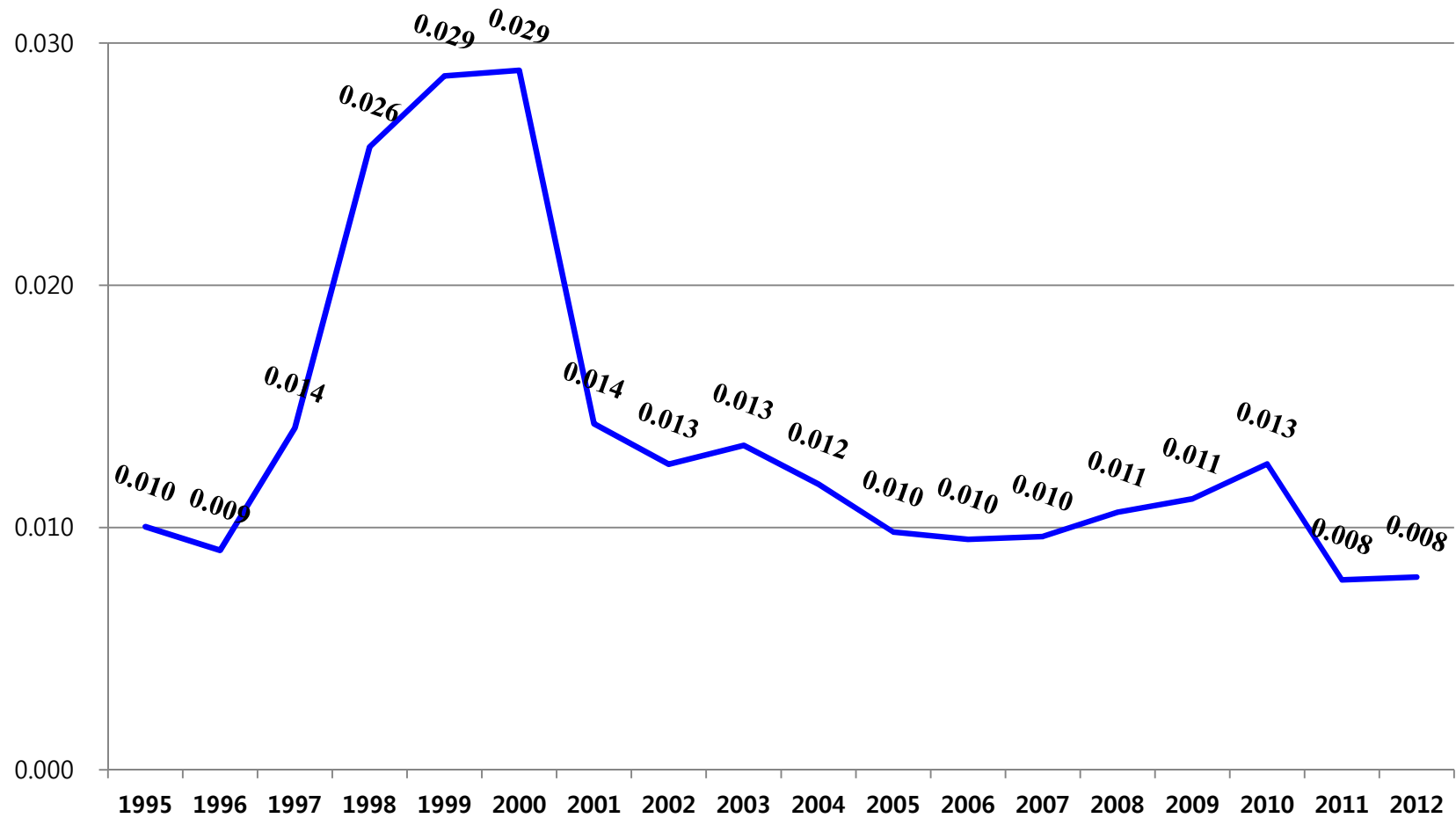
V. 연구모형

<표 1> 주요변수들의 1995-2012 평균값

YEAR	표본수	LLA	NPL	NCO	LOAN	ER	RETN
1995	24	0.010	0.032	0.003	0.421	0.081	0.008
1996	25	0.009	0.029	0.003	0.425	0.071	0.007
1997	25	0.014	0.060	0.003	0.409	0.062	-0.002
1998	21	0.026	0.057	0.009	0.395	0.043	-0.030
1999	17	0.029	0.090	0.010	0.445	0.033	0.005
2000	14	0.029	0.059	0.016	0.494	0.045	0.011
2001	13	0.014	0.022	0.022	0.564	0.039	0.015
2002	14	0.013	0.015	0.008	0.619	0.042	0.016
2003	14	0.013	0.016	0.011	0.647	0.045	0.016
2004	14	0.012	0.012	0.012	0.659	0.046	0.017
2005	14	0.010	0.008	0.005	0.655	0.052	0.015
2006	13	0.010	0.006	0.003	0.669	0.059	0.015
2007	13	0.010	0.005	0.002	0.679	0.061	0.013
2008	13	0.011	0.007	0.003	0.648	0.061	0.009
2009	13	0.011	0.008	0.006	0.674	0.059	0.007
2010	13	0.013	0.012	0.004	0.669	0.070	0.008
2011	13	0.008	0.009	0.005	0.683	0.071	0.011
2012	13	0.008	0.009	0.005	0.685	0.076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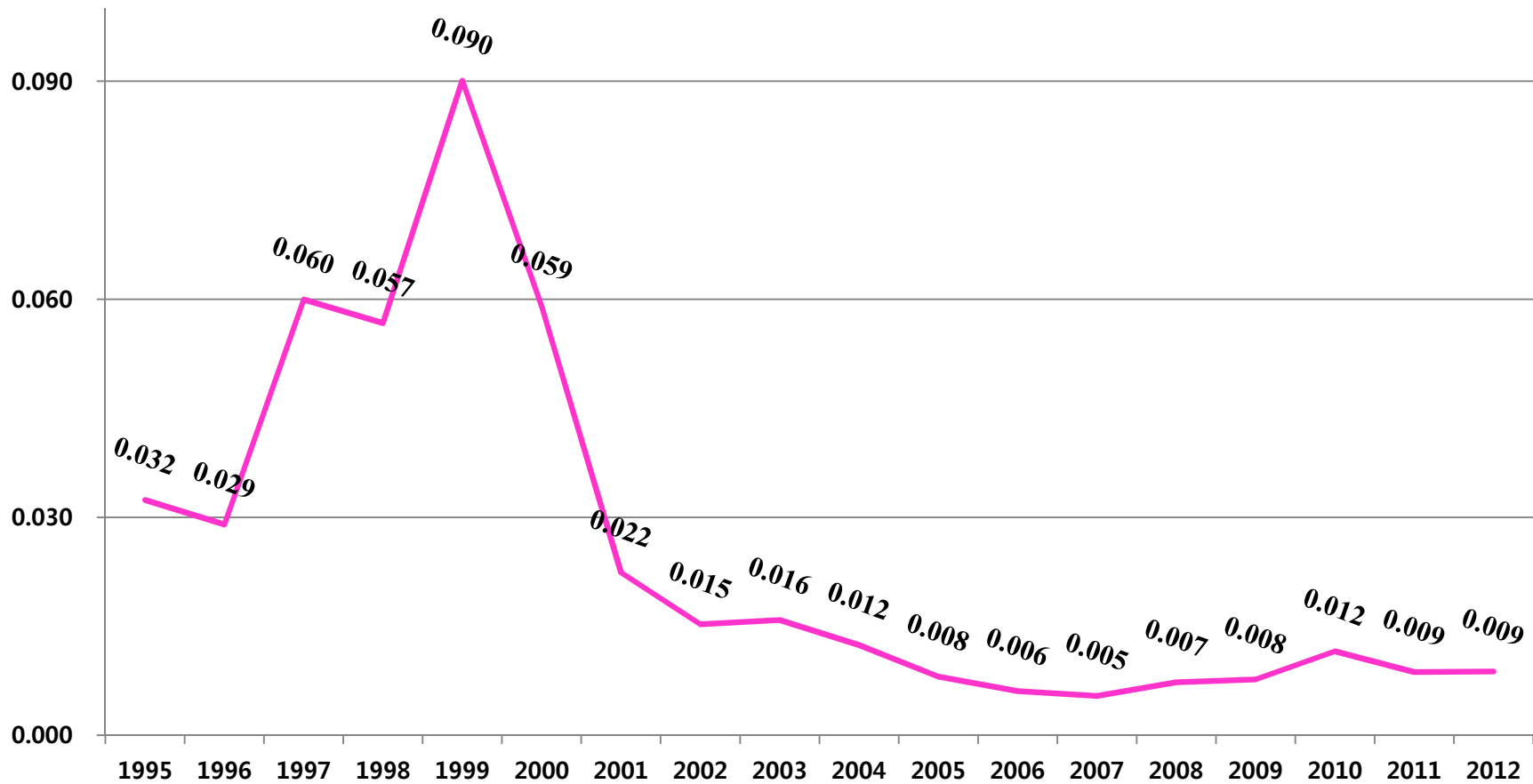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1> LLA(대손충당금_t/총자산_t)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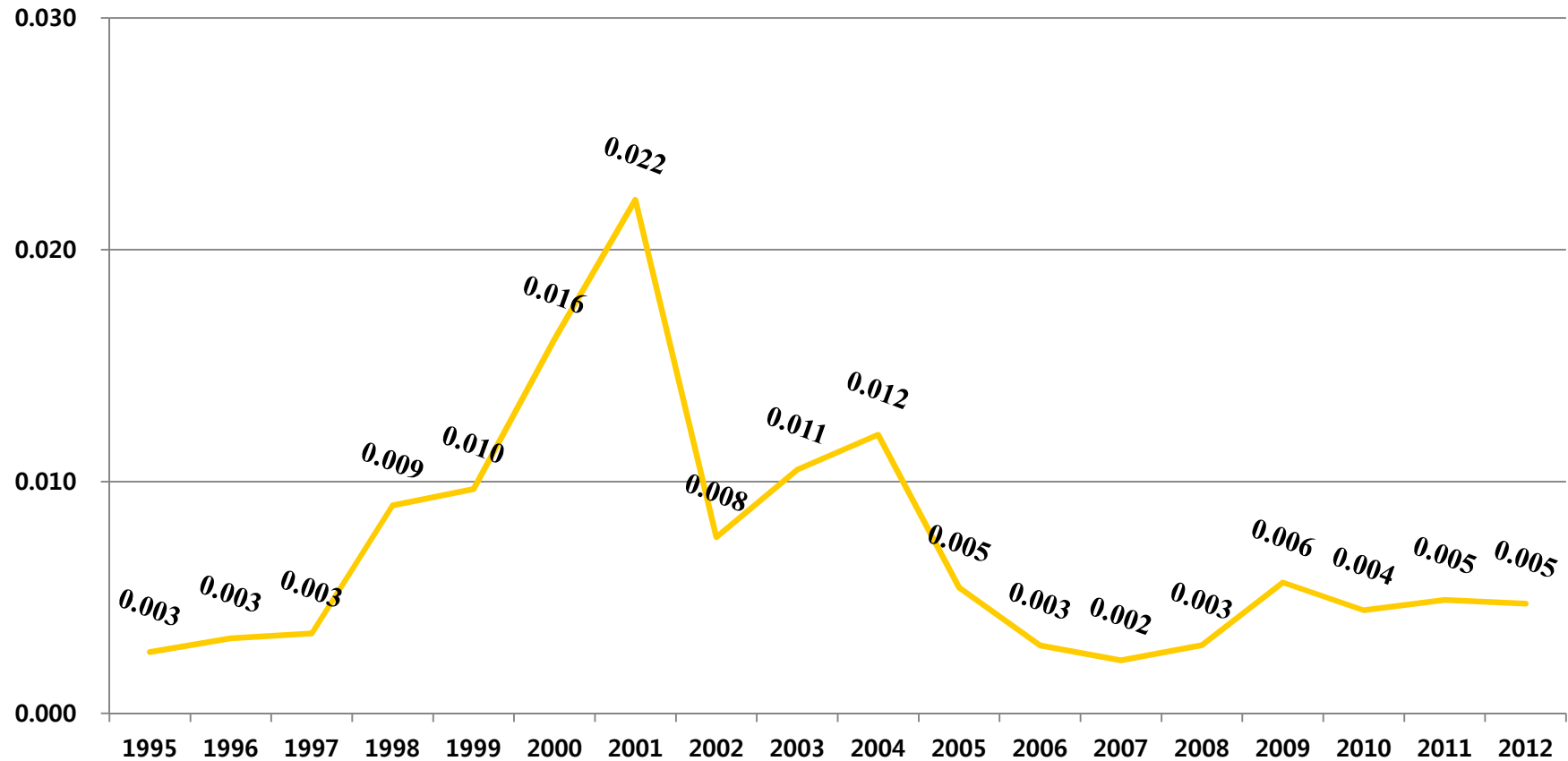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2> NPL(고정이하여신_t/총자산_t)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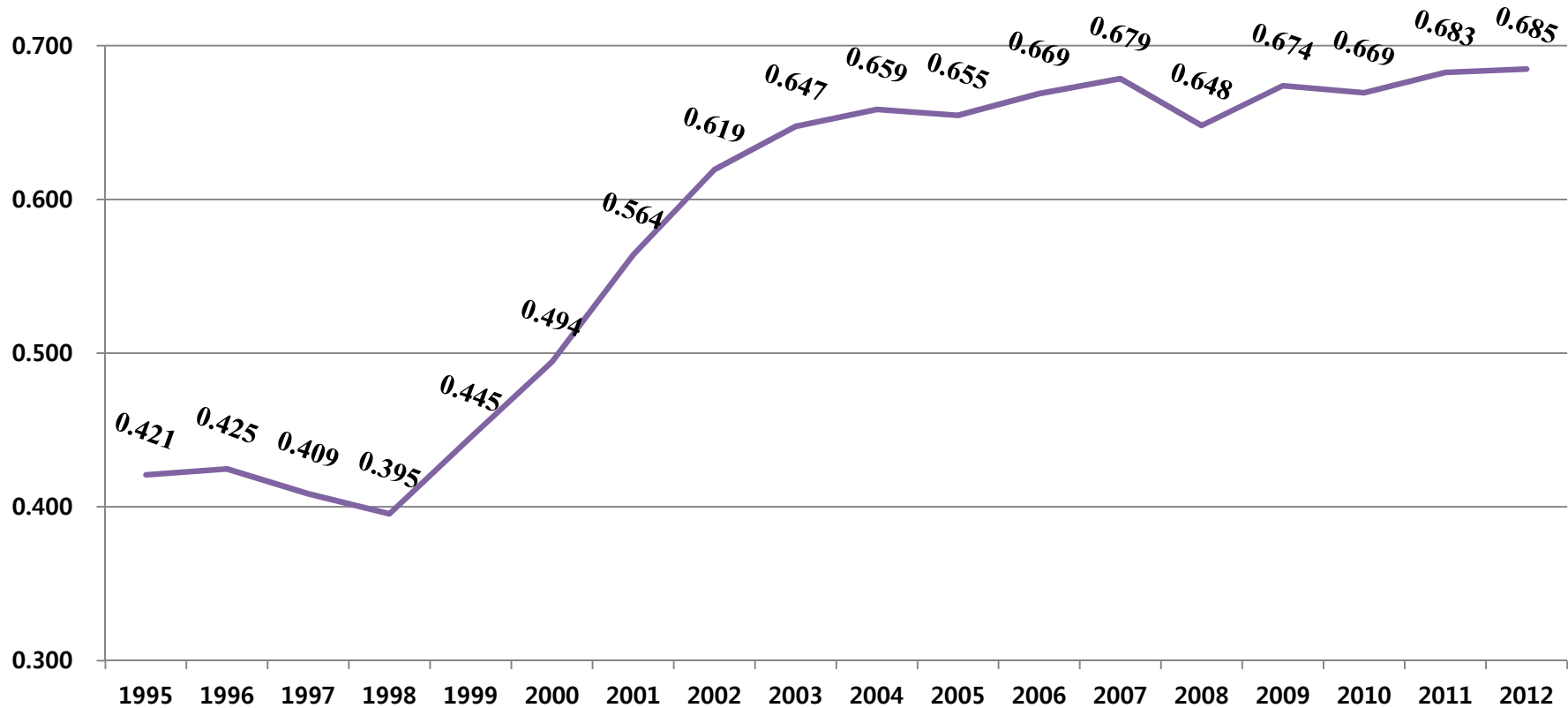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3> NCO(상각채권_t / 총자산_t)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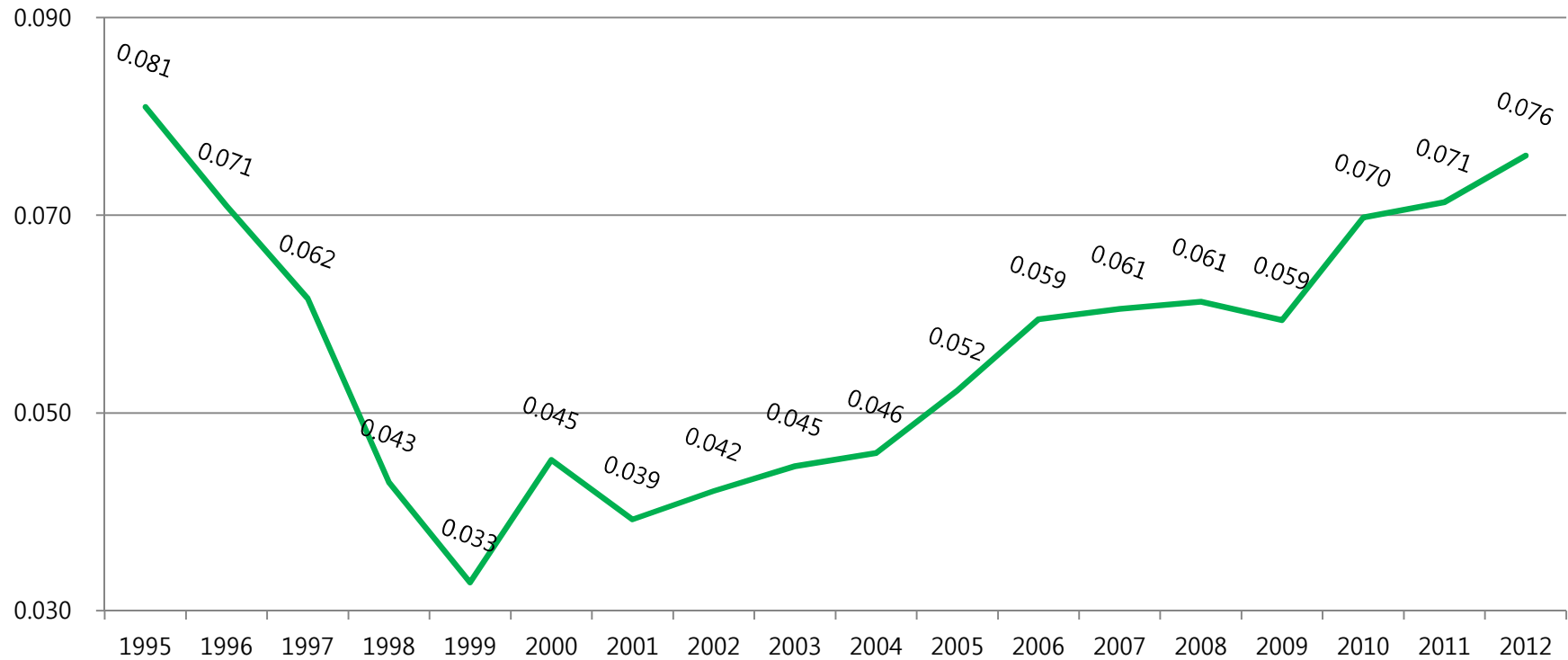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4> LOAN(고정이하여신을 제외한 대출금_t/총자산_t)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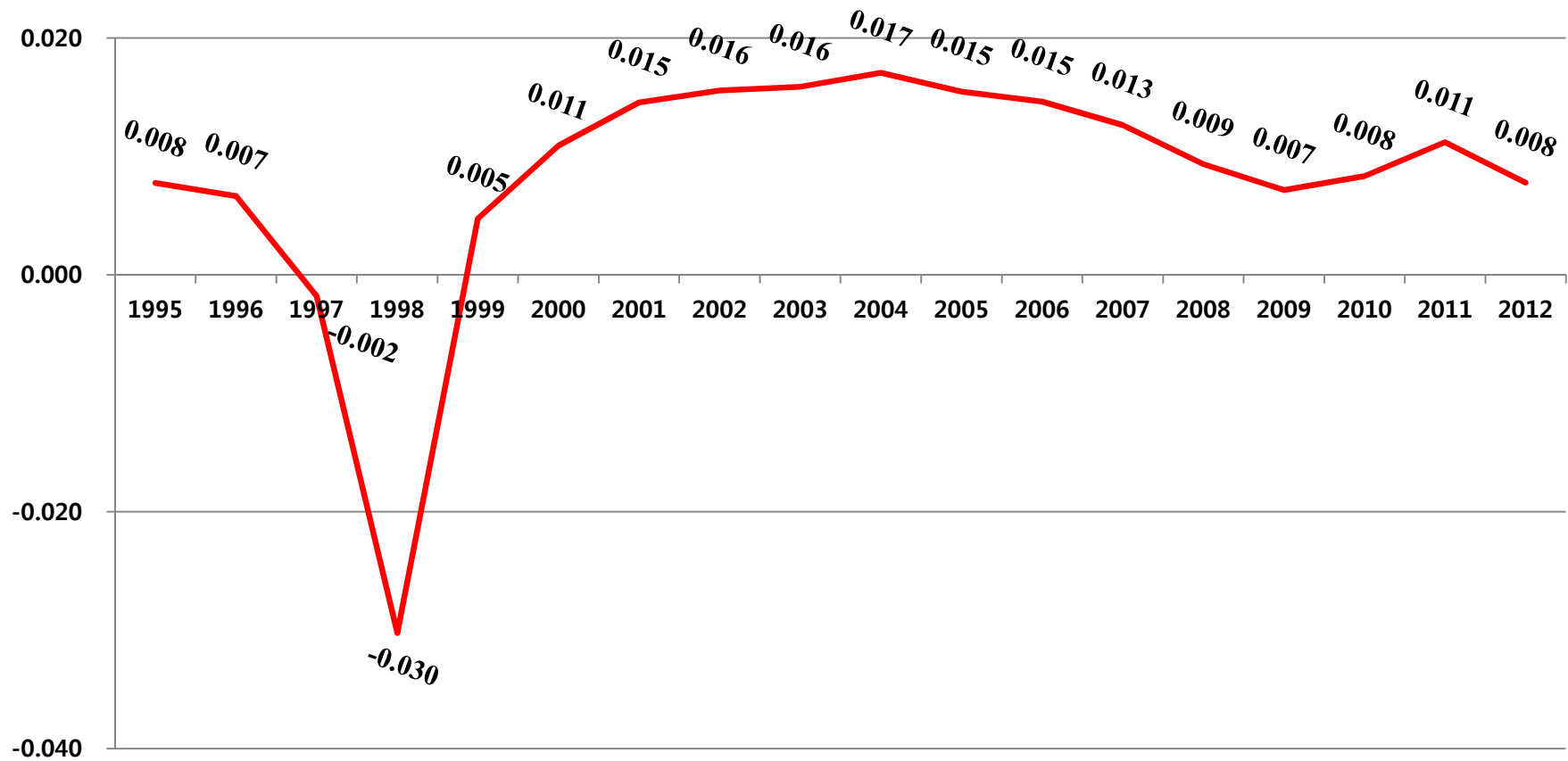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5> ER (자기자본_t / 총자산_{t-1})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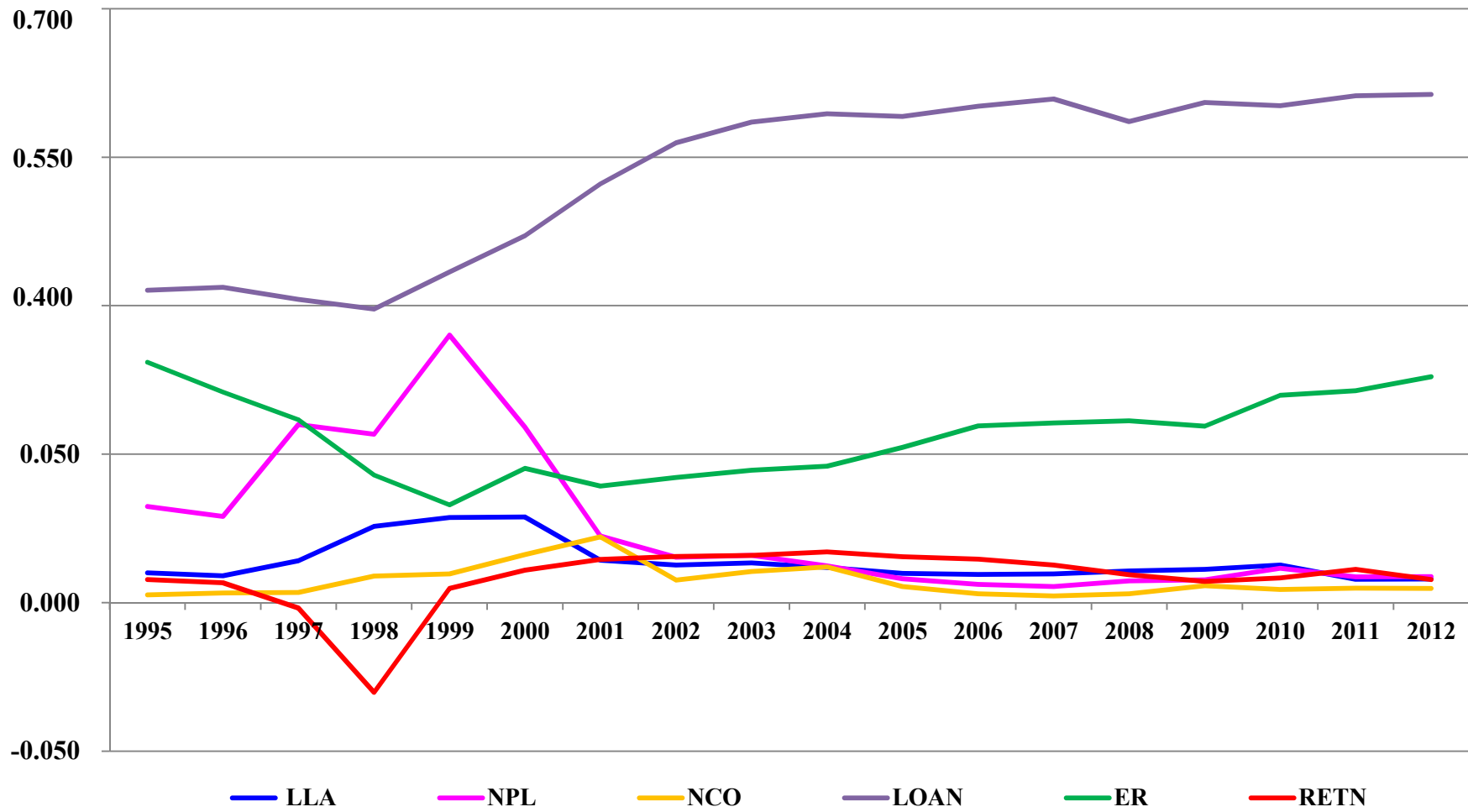
V. 연구모형

<그림 6> RETN(법인세비용과 대손상각비 차감전 순이익_t/총자산_t) 평균값 추이



V. 연구모형

<그림 7> 주요변수들의 평균값 변화 추이



VI. 실증분석

<표 2> 회귀식에 사용한 변수 평균값

변수	외환위기 이전 (95-96)	외환위기 중 (97-98)	외환위기 이후 (99-06)	금융위기 (07-10)	IFRS도입 (11-12)
<i>LLA</i>	0.009	0.019	0.017	0.011	0.008
<i>NPL</i>	0.031	0.058	0.031	0.008	0.009
<i>NCO</i>	0.003	0.006	0.011	0.004	0.004
<i>LOAN</i>	0.423	0.403	0.589	0.667	0.683
<i>ER</i>	0.076	0.053	0.045	0.063	0.073
<i>RETN</i>	0.007	-0.015	0.013	0.009	0.010
표본수	49	46	112	52	26

VI. 실증분석

<표 3> 외환위기 전/중/후, 금융위기, IFRS기간 대손충당금 결정모형 추정

변수	예상 부호	외환위기 이전(95-96)		외환위기 중(97-98)		외환위기 이후(99-06)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	0.009 (2.75) ***		0.016 (1.31)		-0.008 (-1.44)	
<i>NPL</i>	+	0.117 (5.96) ***		0.200 (3.71) ***		0.329 (13.29) ***	
<i>NCO</i>	+	0.050 (0.33)		-0.014 (-0.09)		0.073 (1.63)	
<i>LOAN</i>	+	-0.012 (-1.78) *		-0.004 (-0.15)		0.022 (2.34) **	
<i>ER</i>	?	0.003 (0.31)		-0.170 (-1.91) **		-0.022 (-0.49)	
<i>RETN</i>	+	0.227 (2.35) ***		-0.139 (-1.74) **		0.165 (3.77) ***	
Adj. R ²		0.574		0.571		0.747	
F-값		13.93 ***		12.97 ***		66.36 ***	
표본수		49		46		112	

계속 → 28

VI. 실증분석

<표 4> 외환위기 전/중/후, 금융위기, IFRS기간 대손충당금 결정모형 추정

변수	예상 부호	금융위기 (07-10)		IFRS도입 (11-1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	-0.001	(-0.08)	0.001	(0.25)
<i>NPL</i>	+	0.358	(11.06) ***	-0.098	(-0.29)
<i>NCO</i>	+	0.049	(0.91)	0.872	(3.09) ***
<i>LOAN</i>	+	0.011	(6.67) ***	0.007	(0.92)
<i>ER</i>	?	0.027	(2.77) ***	-0.007	(-0.21)
<i>RETN</i>	+	-0.118	(-4.15) ***	-0.105	(-1.10)
Adj. R ²		0.870		0.439	
F-값		69.12 ***		4.92 ***	
표본수		52		26	

VII. 국제비교

<표 4> Hansan and Wall(2004)의 Table 4

변수	예상 부호	한국(95-12)		미국 (94-02)		일본(94-0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	-0.001 (-0.50)		0.002 (3.24) ***		-0.003 (-1.30)	
NPL_t	+	0.271 (17.05) ***		0.187 (16.11) ***		0.204 (13.01) ***	
NCO_t	+	0.095 (2.46) **		0.299 (10.08) ***		-0.022 (-0.52)	
$LOAN_t$	+	0.019 (5.07) ***		0.008 (9.40) ***		0.012 (3.50) ***	
ER_{t-1}	?	-0.058 (-3.32) ***		0.004 (1.32)		-0.058 (-2.34) **	
$RETN_t$	+	-0.012 (-0.49)		0.108 (9.39) ***		0.418 (6.12) ***	
Adj. R ²		0.650		0.290		0.661	
F-값		106.57***		70.48***		57.63***	
표본수		285		1,871		321	